

한국 교회의 목회 윤리¹⁾

- 목회자, 수도자인가 관리자인가? -

Pastoral Ethics and Korean Church

강영안

서강대 철학과 교수

1. 목회 윤리, 왜 관심을 끄는가?

지난 해 종교개혁 기념일을 계기로 목회자, 학자, 전문직 종사자 300여 명이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한 '98 선언문”을 채택하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은 교회 개혁 과제로 교회 내의 권위주의 척결, 목사 장로 임기제와 평가제 도입, 노회와 총회의 금권 선거 배격, 교회 재정 사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개교회 성장주의 배격과 협력 구축,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교회의 연합과 일치, 목회자 자질 향상과 신학 교육의 정상화를 들고 있다. 이 선언문에 따르면 현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일보다

1) 이 글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주최로 1999년 6월 15일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열렸던 제 1회 전국목회자 연합수련회 '목회 윤리' 분과에서 발제한 원고이다. 발제를 부탁한 상임회장 옥한흠 목사, 상임총무 조성기 목사, 논찬을 맡아준 최홍준 목사, 원고를 준비할 때 도움을 준 고려신학대학원 도서관 관계자들과 기윤실 양세진 간사께 감사드린다.

수와 크기를 자랑하고, 섬김과 나눔의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은 오히려 권위와 교권을 내세우고 있다. 평신도의 위치는 위축되고 사회적 책임은 무시되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어야 할 교회는 분열되어 있다. 그래서 '98 선언문은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를 변혁하고 선도할 지도력을 잃어버렸다"고 진단하면서 교회 갱신과 교회 지도력 회복을 위해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히고 있다.²⁾

한국 교회의 개혁 과제로 적시된 일곱 가지 사항이 모두 윤리적 문제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목회자 자질 향상과 신학 교육 정상화,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연합과 일치 등, 그 자체로는 윤리적인 것과 다른 성격을 가진 문제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목들이 윤리적 함축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회 내 권위주의의 문제는 교회 안의 의사 소통과 의사 결정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교회에는 예컨대 당회, 제직회, 그리고 특별한 목적으로 구성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기구들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사를 소통하고 결정한다면 무리가 없다. 하지만 목사와 장로, 또는 목사나 장로가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집단이나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힘의 편중을 막기 위해서는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과정이 결여될 때 권력 독점이 생길 수 있고 이 때 윤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목사 장로 임기제를 제안한 것이나 노회 및 총회의 금권 선거를 배격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금권 선거에는 권력과 명예 뿐만 아니라 돈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임기제 문제와는 조금 다르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을 공정하고 사려깊은 과정을 통해서 선출하기보다 파벌과 돈을 이용해서 노회

2)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1998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역보고서」(기독교윤리실천운동 위임)(도서출판 기윤실, 1998), 128-130쪽 참조.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한 '98 선언문 해설 자료집」(도서출판 기윤실, 1998) 참조.

장이나 총회장을 뽑는 일은 명백하게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다. 개교회주의, 교회성장주의, 교회의 분열, 신학 교육 문제 등에도 윤리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98 선언문에서 적시된 개혁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윤리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한국 교회가 그동안 윤리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 교회는 우리 모두 인정하듯이 70년대 이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질적 성장이나 사회적 지도력은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공통된 인식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 가운데 교인들이 많이 관여되어 있었던 것은 기독교에 대한 사회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최근 문제가 된 고급 옷 뇌물 사건에도 같은 선교모임에서 활동한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되어 있었다. 어떤 교회 교인들은 방송국에 난입해서 방송 중단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잘못된 종말론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있다. 전도를 하느라고 복잡한 지하철에서 고함을 지르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도 가끔 있다. 이웃의 휴식이나 수면은 무시한 채 교회 행사를 치르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 모든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사적’이라는 말을 듣기보다 오히려 이기적이며 무례하며 상식이 없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이제는 그야말로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기보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³⁾

바깥으로 비쳐진 모습 못지 않게 교회 안을 들여다 보아도

3) 최근 한미준과 한국 껀럽의 공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비종교인들은 개신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70.8%), ‘참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교세를 확장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76%)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지도자들의 자질이 우수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22.8%만이 그렇다고 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개신교 지도자들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과 신앙의식』 '98 한미준-한국 껀럽 조사 보고서, (한미준/한국껀럽 껀읍)(도서출판 두란노, 1999), 117-118쪽.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총회장 선거 때 금품이 오가는 일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 되었다.⁴⁾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로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목사를 고용인 부리듯이 부리는 교회가 없지 않다.⁵⁾ 교회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음에도 목사, 장로, 집사 등의 직분 개념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의 실정이다. 스스로 개척한 소위 ‘오너’ 목사는 자신이 마치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목사의 전횡에 비판하는 교인이 있을 때는 순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도록 만든다. 목사의 ‘축도권’ 이니 ‘저주권’ 이니 하는 해괴한 말이 가끔 들리기도 한다. 당회장 목사와 ‘부’ 목사 사이에는 가톨릭 교회의 본당신부와 보좌신부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신분과 책임의 차이가 한국 교회 어느 교회에나 예외 없이 존재한다. 개혁 교회 전통에서 볼 수 있는 공동 사역 목사 개념이 없다.⁶⁾ 위임받은 목사가 문제를 일으켜 사면을 해야 할 경우 교회 개척 명목으로 상당 액수의 보상금을 받고 물러나는 경우가 이제는 다반사처럼 되었다. 어떤 교회에서는 십일조가 원래 제사장을 위한 것이었다는 명목으로 목사가 개인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부흥회를 할 때 3·7제 또는 4·6제로 부흥강사와 교회가 헌금을 분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은 이제는 잘 알려진 비밀이 되었다. 많은 교회 목사들이 최저 생계비와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그들을 도와 줄 체제가 어느 교단에도 존재하지 않거나 동료 목사들조차도 관심이 없다.

4) “나는 고발한다- 어느 교단 금권선거에 대한 양심선언”, 『복음과 상황』(1998년 9월호), 36-50쪽 참조.

5) 이 점에서 장로의 직분 남용과 관련해서는 강영안, 「장로 임기제와 교회 갱신」, 『복음과 상황』, 1998년 11월호 참조. 이 글은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앞의 책), 75-88쪽에 상세한 각주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6) 허순길, 『개혁 교회의 목회와 생활』(총회 출판국, 1998), 41-43쪽 참조.

교회 안팎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은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 사회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윤리가 없다. 가족 사이, 가까운 친구 사이,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 사이에는 해야 할 바의 규칙을 지킨다고 해도 이 범위를 넘어서면 규칙은 쉽게 무시된다. 모두가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일한다. 생존을 위한 투쟁에는 윤리가 없다. 혹시 윤리가 있다 해도 대개는 강자가 만든 규칙일 뿐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쟁취하면 결과가 과정을 모두 정당화하는 것이 그간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교회도 그 사이 한국 사회의 흐름과 함께 흘러 왔고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교회가 사회를 초월해서 사회를 선도하지 못하고 사회의 흐름의 한 줄기로, 때로는 그 흐름을 정당화하고 뒷받침해 주는 기관으로 자리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목회도 어느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무자비한 생존 경쟁의 틀 바구니 속에 끼어 있다. 따라서 목회자들도 복음의 사역자로서 긍지와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성공을 얻기 위해 때로는 교인들에게 아부해야 하고 때로는 교인들에게 억지 권위로 군림해야 하는 매우 슬픈 현실이 빚어졌다.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가, 아니면 교인을 섬기는가? 나는 교인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⁷⁾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라면 누구나 이런 물음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은 무엇보다 교인들에게 책임이 있다. 마치 한국 정치를 현재 이 수준으로 만든 데는 국민의 책임이 큰 것과 마찬가지로 하겠다. 지역 연고, 돈 봉투, 향응 등에 연연하지 않고 공정하고 정당하게 투표만 했더라도 오늘의 한국 정치

7) 게이로드 노이스(김종일 옮김), 『목회 윤리-전문직으로서 목회자의 역할』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19쪽 참조.

는 많이 깨끗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책임이 크다고 해서 정치인들의 책임이 면제될 수가 없듯이 목회자들도 한국 교회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한국 교회가 갱신되자면 목회자의 자기 갱신이 선행해야 한다. 목회자가 스스로 “자신을 지켜 정결케”(딤후 5:22) 하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의 갱신은 불가능하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따를 것이다. 목회자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는 썩 낮지만 그러나 교인들은 아직도 목회자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회자들은 잊어서는 안된다. 교회 갱신 운동은 교회의 전임 사역자로 세움받은 목회자들이 먼저 주도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새 천년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다시 생각하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구성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모임은 어느 모임처럼 자료나 모으고 정보나 얻고 기법을 배우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 교회가 이처럼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것은 자료가 없어서도 아니고 방법론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하는 본질적인 물음이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정체성, 목회자의 정체성, 이것이 뒤틀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목회 윤리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목회자: 성장주의의 희생자들

목회자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 아직도 내 기억 속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일이 하나 있다. 1983년 여름의 일이었다. 암스테르담에서 ‘순회 전도자를 위한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전도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한국 목사님들이 스물 다섯 분 정도 오셨는데 암스테르담 한인 교회는 그 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다. 박윤선 목사님이 설교를 맡으셨고 예배 후 교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한인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국내에서 교회 생활을 한 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았다. 그러므로 많은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눈다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일이었다. 스물 다섯 분이냐 되는 목사님들을 한꺼번에 '본다'는 것만도 특이한 경험이었다.

목사님들이 떠난 뒤, 몇몇 교인들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에게서 받은 인상을 말하였다. “목사님처럼 생긴 분은 거의 안 보여. 다 사업가들 같아!” 입바른 소리 잘 하는 어느 부인이 그렇게 말했다. 그랬더니 여기 저기서 “그래, 그래, 그런 것 같아”하는 소리들이 나왔다. 이러한 반응에 교인들이 대부분 동의했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의외였다. 초신자들인 그들 눈에, 우리에게는 비교적 익숙한 목사님들의 모습, 목사님들의 옷차림·어투·몸짓이 ‘목사님’처럼 보이기보다 사업가처럼 보이게 했던 모양이다. 그들은 대부분 암스테르담에 파견된 상사 직원이거나 그들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사업가의 모습은 그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었다. 좀 진지하고 티없고 어딘가 좀 탈속적인 모습을 기대하였는데 그들이 그날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본 목사님들의 인상이 그들 주변 사람과 별 다른 차이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어느 일본 사업가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사람에게 “불교 스님을 만날 때마다 나는 성자를 만납니다. 그러나 기독교 지도자를 만나면 관리자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토로했다고 하는데 암스테르담 한인 교회 교인들도 한국 목사님들에게서 그와 비슷한 인상을 받았던 것 같다.⁸⁾ 그들은 수도사와 가

8) Os Guinness, *Dining with the Devil: The Megachurch Movement Flirts with Modernity*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3), 49쪽: “When I meet a Buddhist leader I meet a holy man, Whenever I meet a Christian leader, I meet a manager.”

까운 모습을 목사님들께 기대하고 있었다.

나는 목회자가 수도사처럼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요 17:11, 14). 그러나 그들에게 이 세상과 분리해서 수도 공동체를 만들어 따로 살도록 권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내가 비유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 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 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함이니이다”(요한 17:15-19)라고 기도하셨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에 살고 있고, 단지 세상에 살 뿐 아니라 사명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 받은 사람들’이다. 세상은 제자들의 삶의 장소이며 일터이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것은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기 위한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주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말씀으로 주의 제자를 양육하는 목회자는 세상과 동진 수도사처럼 보일 필요는 없다. 목회자는 세상 안에서, 세상 안에 있는 교회를 섬김으로, 이를 통해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수도사처럼 탈속적인 모습으로 목회할 수는 없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수도사이면서 동시에 관리자여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한국 목회자들의 모습인가?

나는 암스테르담 한인 교회 교인들의 인상이 피상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에 대

해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각하게 해 주는 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어떤 일에 오랫동안 몰두하면 할수록 그 일은 사람의 외모와 인상을 바꾼다. 산사에서 오랫동안 수련한 비구나 비구니들은 말할 것 없고 한 평생을 한결같이 갓이나 활을 만들어 온 장인(匠人)들의 모습에서 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한다. 반복된 훈련과 집중은 틀이 잡힌 습관을 낳고 습관은 결국 범상치 않은 ‘뛰어남’을 낳는다. 우리가 보통 ‘덕’(德)으로 번역하는 헬라어의 아레테(arete)는 습관(hexis, habitus)을 통해 형성된 ‘뛰어남’을 뜻한다. 마치 눈의 뛰어남이 잘 볼 수 있는 데 있고 말의 뛰어남이 잘 달리는 데 있듯이 사람의 뛰어남(사람에게 있는 ‘덕’)은 그의 ‘헥시스’ 즉 습관처럼 몸에 배인 삶의 태도와 성향에 있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선한 결과를 산출할 때 그 사람에게 인간으로서 지닌 뛰어남, 즉 도덕적 덕이 있다고 할 수 있다.⁹⁾

그러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다는 목회자들에게서 그의 눈길과 낫빛과 몸짓에서 그와 같은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끊임없는 긴장과 계획과 실행에 사로잡힐 필요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며 주어진 삶을 사는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한가함과 평안함이 오늘 우리의 목회자들에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일찍이 루터는 기도(oratio)와 묵상(meditatio)과 추구(tentatio), 곧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금욕적 고난의 자세를 신학방법론으로 말한 적이 있다.¹⁰⁾ 기도를 강조하고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목회자 스스로도 그와 같은 것을 애써 할지라도 이러한 경건 훈련이 목회자의 습관과 행동 방식 그리고 나아가 인격과 성품과 언어를 순화시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여전히 혈기가 있고 여전

9) Aristoteles, *Ethica Nicomachea*, 1106b 36-07a2 참조.

10) 루터의 세가지 방법에 관해서는 유해무, 『개혁 교의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1997), 41-42쪽 참조.

히 조급하며, 여전히 타인의 말 듣기를 무시하고, 여전히 그 얼굴과 태도에 교만과 독선이 엿보인다면 자기를 쳐서 삼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빚어 가도록 자신을 내어 놓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나는 이것이 한국 목회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목회의 방향과 성격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어느 사이 사업체를 가진 사업가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경쟁 가운데서 더 큰 성공과 더 큰 결과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목회자 스스로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장로나 지도자들도 은근히 또는 경우에 따라 노골적으로 목회자에게 그와 같은 압력을 행사한다. 목회자든 장로든 교인이든 오늘 한국 교회 목회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은 한마디로 '성장주의' 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만들어 낸 다른 모든 우상과 마찬가지로 성장주의라는 우상도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화한다. 성장주의의 우상에 사로잡히면 수적 성장이 목적이 되고 그 외 다른 모든 것은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이 된다. 소그룹 모임, 제자 훈련, 전도 훈련, 그리고 온전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성경 공부와 기도도 성장주의의 우상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된다. 목회자 자신도 성장주의의 우상을 섬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교회 성장을 위해 실행하는 프로그램,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설교, 가르치기 위해 하는 성경 연구, 이들 모두가 자신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키워 주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 성장'이라는 성공을 거두기 위한 수단이 된다. 심지어 하나님도 성장주의의 우상을 섬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되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에게는 그들의 욕구 충족과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성장주의의 우상에 사로잡힌 목회자

와 교인은 다같이 외적·수적 성장 그 자체가 목적일 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엡 4:13) 성숙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성장주의’가 현실적으로 기독교 윤리와 목회 윤리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목회 자체를 왜곡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바른 목회의 회복, 이것이 목회 윤리의 시작이다.

3. 목회: 성도를 구비시키는 일

어떤 이는 당장 목회와 윤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물을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윤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물음은 어찌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목회 윤리’ 또는 ‘목회와 윤리’는 ‘윤리적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는 될지언정 능력있는 삶을 사는 ‘영적 그리스도인’과 ‘영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종’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목회는 은혜로 하는 거야!” 말하면서 초법적이고 초윤리적인 행위를 실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목회자들도 없지 않은 듯하다. ‘윤리’라는 단어 자체를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은 듯하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같은 기독교 시민 단체를 목사 비리나 캐는 단체로 오해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목회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의 사역자를 세우셨는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가 그리스도가니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

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쓰고 있다(엡 4:11-13). 교회 직분은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주신은사(charismata)인데,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oikodome)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섬김의 일을 맡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 교회 직분자, 특히 이 가운데서도 목사와 교사로 세움받은 목회자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도 결국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하자면 목회란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말로 번역된 카타르티스모스(katartismos, 동사 katartizo)는 ‘질서를 세우다’, ‘바로잡다’, ‘준비하다’, ‘모양을 만들다’, ‘완전케 하다’, ‘필요한 무장을 시키다’ 등등을 뜻한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이들이 그물을 ‘깊고 있는’(katartizontas) 모습을 보셨다(마 4: 21). 고기를 잡은 뒤 그물을 다시 고치고 있었다는 말이다(막 1: 9참조).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는 시편 40편 7절(70인역)을 인용하면서 이 단어를 ‘예비하다’, ‘준비하다’는 뜻으로 쓰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할 때 ‘지으신’이 카테르티스타이(katertisthai)의 번역어로 쓰였다. 그러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히 13:21)라고 할 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

회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라고 할 때,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의 경우에는 모두 ‘온전케 하심’으로 번역되어 있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필요한 장비로 무장시켜(영어로 표현하자면 equipping해서) 목적인 바의 일을 수행케 한다’는 뜻이다.¹¹⁾ 그러므로 아마도 짧게 줄여 번역한다면 ‘구비(具備)시킨다’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목회는 ‘성도를 구비시키는 일’이다. 그렇다면 당장 물어야 할 것이, 무엇을 위한 구비인가 하는 것이다. 한글개역판과 최근에 출판된 개역개정판을 보면 다같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원문에는 각각의 은사대로 교회 사역자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구비시키기 위한 것’(pros ton katartismos)이고, 무엇을 위한 구비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봉사의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eis ergon diakonias, eis oikodomen tou somatos tou Christou)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섬김의 일을 하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성도를 구비시킨다는 것이다. 목회는 따라서 (다른 여러 일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성도들을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에 따라 훈련을 시켜 사역자로 세우는 일이다.

4. 목회의 윤리적 함축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목적은 섬김의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11) Walter Bauer, *Woerterbuch zum Neuen Testament*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71), 826쪽; L. Coenen et al (eds.), *Theologische Begriffslexikon zum Neuen Testament* (Wuppertal: R. Brockhaus, 1983), Bd.2, 1048쪽 참조.

몸, 곧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세워 가는 일이되, 이 때 교회는 그 자체가 궁극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첫째, 하나의 유기체적 몸으로 세워져 그리스도를 아는 체험적인 지식과 믿음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있어야 하고 이 지식과 믿음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엡 4:13).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중요와 분열, 무시와 무관심이 있다면 그러한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름을 갖기에는 부족하다. 한국 교회에 만연한 교회 분열과 불일치, 교회 상호간의 무관심, 개교회 중심주의는 교회의 참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엡 4:4)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인데 교회는 교회대로, 교인은 교인대로 모두 서로 무관한 것처럼 살고 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보기를 마치 자기가 늘 가는 가게에 가지 않고 딴 가게에 들르는 사람 보듯 그렇게 쳐다본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연합과 일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얼마나 비윤리적인 태도인가! 그러므로 교회 갱신과 새로운 목회 윤리 회복은 이 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자체 몸뚱이만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성, 새로운 성숙한 인류 공동체를 빚어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엡 4:13; 엡 2:15; 고후 5:17 참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품었던 비전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인류 공동체, 성숙한 인간 공동체였다. 이러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까지’(mechri)(엡 3:13) 성도를 훈련시키는 일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맡기신 일이다. 한국 교회는 이 점에서도 실패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성숙한 사람으로’(eis andran teleion)(엡4:13) 만들기 위한 것임에

도 교회의 일원이 된 것으로 만족하고 그들에게 계속 설교를 했을 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양육하는 일에는 대체로 무관심했다. 지난 몇 십 년 사이 제자 훈련에 관심을 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양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는 설교 중심의 목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도 그 훈련을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데까지 충분히 이르지 못하고 있다. 월터스토프의 말대로 “설교는 설교를 낳는다.”¹²⁾ 설교를 들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설교를 할 뿐 그것이 ‘마음의 태도’를 이루도록 육화되지 않을 뿐더러 대개 실천도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목회자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새로운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참된 말, 참된 행실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4-15)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짓 열정과 감정으로 형성된 모임이 아니라 의로움과 진실함과 참된 평화가 있는 공동체이다(엡 4:23; 5: 9; 롬 15:17 참조).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엡 4:16) 공동체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유혹의

12) Nicholas Wolterstorff, *Educating for Responsible Action*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80), 57쪽.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나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엡 4: 17-32).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인간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윤리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롭게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목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윤리적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지향한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그러한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이 나라로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엡 2: 16).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 1-3)고 권한다. 이러한 권유를 바울은 그의 편지를 통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바울이 권유하고 있는 이유는 “주께 합당하게”(axios tou kurio)(골 1:10), “복음에 합당하게”(axios tou euageliou)(빌 1:27), 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axios peripatesai tes kleseos)(엡 4:1) 하

기 때문이다. 만일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정당화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이 '주께, 복음에, 부르심에 합당하게(값을 하게, 그럴만한 가치가 있게)행하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기서 잠깐 괄호 속에 주석을 하나 붙여두자. 기독교 윤리는 예컨대 불교나 유교 또는 철학적 윤리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구속 활동이 선행된 윤리라는 것이다. 불교는 우리의 입과 몸과 마음이 저지를 수 있는 죄를 유추해 낸다. 유교의 경우는 수직적, 수평적 인간 관계 속에서 상호간 지켜야 할 덕목을 명시한다. 철학적 윤리는 예컨대 칸트처럼 이성으로부터 정언명법을 추론해 낸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건져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규칙으로 윤리적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다. 예컨대 십계명의 경우, 계명이 주어지기 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출 20:1)라는 서두가 선행한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 자기 백성으로 삼으면서 그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¹³⁾ 산상설교의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에 따라 예수께서 먼저 팔복을 선언하시고(마 5: 3-12), 세상 속 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시고(마 5: 13-16), 그 뒤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규범을 주셨다. 이 점에서 산상설교는 율법과 구별된다. 복음이 선행하고 그 뒤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다.¹⁴⁾ 바울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진 구원 사건을 먼저 얘기한 다음 그 뒤 비로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쳤다. 예

13) J. Douma, *Verantwoord Handelen* (Kampen: Van den Berg, 1992), 69-70쪽 참조.

14) Joachim Jeremias, "Die Bergpredigt", in: Abba: *Studien zur neutestamentlichen Theologie und Zeitgeschichte* (Goettingen, 1966), 171-190쪽 참조.

컨대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서술적으로 말한 뒤 그 뒤 곧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른바 ‘명령법’(imperativus)이 ‘직설법’(indicativus)을 따른다.¹⁵⁾ 이것은 구원의 선행성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우마의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법은 ‘구원의 길’(heilsweg)이 아니라 ‘삶의 규범’(levensnorm)이다.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성경을 존중하고 읽어 온 한국 교회가 신앙과 행위, 믿음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한 것은 그 연유를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¹⁷⁾

5. 한국의 목회 윤리, 무엇이 문제인가

목회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공동체를 위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과정도 당연히 윤리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목회가 윤리를 벗어나 있거나 윤리 위에 있다거나 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윤리는 결코 모든 것이 될 수 없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모든 일이 윤리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윤리

15) 자세한 논의는 예컨대 Herman Ridderbos, *Paulus: Ontwerp van zijn Theologie* (Kampen: Kok, 1978), 279-284쪽 참조.

16) J. Douma, 앞의 책, 68쪽.

17) 믿음과 행위의 분리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윤리적 무관심에 대해서 신약학자의 입장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한 글로는 정훈택, 「신학적 도약」(은혜와 진리/민영사, 1994) 가운데 1장 “행위의 구원론적 의미”(11-106쪽) 참조.

환원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윤리가 모두가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에 윤리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치, 경제, 예술, 학문, 언론, 이 모든 것에 윤리적인 것이 관련되어 있다. 정치는 윤리와 구별되지만 정당하게 하는가 부당하게 하는가 하는 물음과 관련해서는 윤리가 개입된다. 이 점에서 목회도 마찬가지다. 목회는 윤리가 아니다. 또 단순히 윤리적 교훈을 해서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 목회의 목적이 아니다. 목회는 앞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성도들을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에 따라 구비시켜 사역자로 세우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목회 윤리에서 심각하게 생각되는 것은 목회자의 임무가 '성도를 구비시키는 일' (equipping the saints)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신도를 깨워서 그들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 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키워내기보다 매주 그 때마다 설교를 듣고 즐기며 소비하는 일종의 '소비자' 로 붙잡아 둔다. 소비자는 욕구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름에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러한 성도들을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 수 있도록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로 키우지 않고 계속 신앙의 초보 상태에 머물게 놓아 둔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제안한다. 평신도를 해방시켜라! 세상이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평신도들을 교회 안에 가두지 말라! 평신도의 삶의 장소는 세상이다. 세상에서 말씀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 이른바 '평신도' 들이다.¹⁸⁾ 평신도를 훈련시켜 전문

18) 평신도를 사역자로 훈련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쓴 책으로는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의 폴 스티븐스의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IVP, 1995),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IVP, 1995), 『현대인을 위한 생활 영성』(IVP, 1996), 그리고 풀러신학교의 목회학 박사과정 책임자로 있는 그레그 옥텐의 『새로

분야와 관련된 사역자로 함께 동역하라! 여기에 나는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한다. 목회자는 어차피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삶의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결여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문화된 분야와 관련해서 성경적 가르침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그와 관련된 영적·윤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각 전문 분야의 평신도들이 사역자로 준비되고 세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일에 무관심한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우리는 예컨대 교회의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 구조라든지, '홀어지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다든지,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충분히 일깨우지 못하고 잠재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없다든지 하는 것들을 들 수 있다.

둘째, '목회 윤리' 또는 '목회자 윤리'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목회 윤리에 대한 무관심은 자신의 직무 수행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대해서 반성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목회 윤리는 '목회 윤리' 또는 '목회자 윤리'에 대한 관심으로 의식 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개선될 수 없다. '목회자도 전문가이다', '전문가가 아니다' 등의 논란이 있지만 마치 교수에게 그의 직무에 상응하는 윤리적 행위를 요구하듯이 목회자에게도 예컨대 그의 직무에 상응하는 지식과 이에 바탕한 능력, 신뢰성, 일관성, 책임성을 나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¹⁹⁾ 교회가 한 목회자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때 이러한 윤리적 덕목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께 대한 윤리적 책임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그러니

윤 교회개혁 이야기,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8), 그리고 구체적이고 일상적 주제를 다룬 책으로 Robert Banks & R. Paul Stevens, *The Complete Book of Everyday Christianity* (Downers Grove, Illinois: IVP, 1997)을 참조할 것. 이 책에는 예컨대 church leadership, equipping, ministry, pastoral care 등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 흥미 있는 논의가 담겨 있다.

19) 목사가 전문가인가 아닌가 하는 논란에 관해서는 게이로드 노이스, 앞의 책, 225-238쪽 참조.

까 목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목회자들 가운데 만일 목회 윤리에 대한 의식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통신이나 우편을 통해서 제공되는 설교문안을 받아보는 일도, 그것을 들고 설교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설교집을 참고는 하되 그것을 그대로 강단에 들고 가서 읽는 일도 없을 것이다. 교인과 부당한 성적 접촉도 없을 것이며, 교회 재정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심방할 때, 노회에 참석할 때 교통비나 사례비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고급 승용차를 교회에 요구하거나 고급 호텔이나 음식점을 애용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윤리의식이 있는 목회자는 말에 조심하며, 검소·절제하며, 가정을 돌보며, 돈에 탐닉하지 않고 자족하며,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성도를 돌보고 세우는 일에 전념하며, 자기를 살피어 언제나 깨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온전한 목회, 바른 목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목회 윤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목회자가 목회 윤리에 관심 가질 때 비로소 목회자는 자신의 목회를 돌아볼 뿐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서 부딪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²⁰⁾

셋째, 좀더 현실적으로 목회자가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지역 교회로서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목회 윤리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다. 교단이 있는 경우, 예컨대 장로교의 경우 노회가 목회자의 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도록 되어 있다. 교회가 문제 삼을 경우, 또는 노회가 숙지했을 경우, 노회가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목사들은 동료 목사를 변호하거나, 설사 면직과 같은 조치를 하더라도 면직당한 목사는 추종자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

20) 윤리적 조언자로서 목회자의 위치에 대해서 강조한 경우를 Velema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W. H. Velema, 『윤리와 목회』; 『改革教會의 正路』(허순길박사 은퇴기념 논문집)(고려신학대학원출판부, 1999), 355-361쪽 참조.

하다. 법적 분쟁으로까지 나갈지라도 법적 제재면 문제된 사건에 관련해서 법적 제재를 받을 뿐 목사로서 다시 '개업'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는 목사가 되고자 하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듯이 "한번 목사가 되면 누구도 목사직을 박탈하지 못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옳다. 따라서 교단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효용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목회자 스스로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세 가지 구체적인 제안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나는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들의 실현성 여부가 어떻게 나오서는 가늠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 볼 때 수수방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 목회자 윤리 강령'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미 몇몇 교단에서 만든 문안이 있으므로 그것을 토대로 좀더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강령을 마련하고 이것을 토대로 끊임없이 목회자들의 윤리 의식을 일깨우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목회자 협의회는 목회자 윤리위원회 구성, 목회자 윤리와 관련된 실태 조사와 사례 수집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목회자 협의회가 실태 조사와 사례 수집을 할 수 없을 경우 믿을만한 기독교 시민단체나 『목회와 신학』과 같은 목회 전문잡지에 의뢰해서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대책을 세울 뿐만 아니라 목회자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를 본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목회적으로 치유할 뿐 아니라 법률적 구조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센터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 위원회나 센터는 목회자, 심리 상담가, 법률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고 가능하면 모든 개신교 교인과 목회자들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특히 목회자와 관련된 일은 목회자 자신들이 해결하기 쉽지 않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일의 성격상 목회자들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셋째, '목회 윤리' 를 신학대학원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그 어떤 과목 못지 않게 중요하게 다룰 것을 제안한다. 과문인지는 몰라도 목회 윤리를 목회학과 독립된 과목으로 다루는 신학대학원은 아직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한국 목회 현장을 바탕으로 목회 윤리를 다룬 책을 나는 아직 한 권도 찾지 못했다. 목회 윤리에 관한 한국은 현실 뿐만 아니라 이론 영역도 완전히 불모지라고 하겠다. 목회 윤리 교육을 제안하면서도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일이 있다. 흔히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시간에 하듯이 목회자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도덕적 훈화로 시간을 보내거나 목회 윤리에 관한 이론서 몇 권 읽고 시험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 교육은 우리가 경험했듯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론적인 논의와 더불어 실제적 사례를 통한 의식 전환 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교사' 직분을 가진 신학 교수들은 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자질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숙고하는 책임을 맡아야 할 것이다. 신학 교수들 못지 않게 일선 교회 목회자들도 미래의 목회자를 인격적으로 양육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목회 윤리 문제는 결국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

에 달려 있다. 목회자도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 이기 때문에 죄와 맞선 싸움과 갈등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탄은 성도 천 사람보다 목사 한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자 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권세를 가장 손쉽게 교회에 펼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목회자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교사로서, 목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권고한 내용을 또다시 읽고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명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둬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딤후 4:6-16).